

음악수업에서의 개별화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정진원** · 신혜경***

본 연구는 개별화 음악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업요인, 교사요인, 학생요인, 정책요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요인, 시설·환경요인의 범주로 개발된 설문 조사를 전국 단위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음악수업에서 다양한 예술적 체험의 가치와 교육과정에 제시된 활동의 균형을 중요시 하였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음악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업준비부터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활용, 평가까지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별화 수업방법에 관한 관심과 관련 연구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수업 방식에 따른 유형은 '전체-개별-모둠'과 '전체-모둠-개별'이, 수업의 방법은 교사 설명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설명 중심의 집단 수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수업을 위해서 음악수업 시수확대, 교사전문성 지원, 음악교사 증원, 시설 확충, 네트워크 구축, 예술 교수-학습 지원센터 구축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필요를 나타내었다.

※ 주요어: 음악수업, 개별화 음악수업, 교사 인식, 개인차

차 례	
I. 서론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절차 및 방법
3. 조사도구	
III. 설문분석결과	
1. 수업요인	2. 교사요인
3. 학생요인	4. 시설·환경요인
5.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요인	6. 정책요인
IV. 결론 및 논의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

***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연구원(교신전자: hshin10@gmail.com)

I. 서론

20세기 진보적 교육의 도래 이후, 지식의 능동적 구축자로 인식되고 있는 ‘학습자’는 다양한 교육적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성과 창의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 교육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그에 따른 교육적 요구가 갖는 의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교육적 시각에서의 ‘학습(learning)’은 단지 특정 지식 또는 기능의 습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개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을 의미한다(Tomlinson, 2001). 같은 연령이라도 학생들은 각자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며 그에 따른 학습 결과도 다르다. 학생의 학업 준비도가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해 볼 때, 이미 상이한 경험과 배경 그리고 능력 조건을 가지고 교실에 존재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학생의 권리로 강조되기도 한다(NCAC, 2002; Bigio, 2010).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개인차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교육적 지향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9조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 6차와 7차 교육과정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열린 교실’, ‘수준별 학급’, ‘심화 보충 학습’ 등 교수-학습에서의 학생 개인차 반영을 위한 실질적 방법의 모색은 부단히 지속되고 있다(전성연, 199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황윤한, 2004).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학습자간의 개인차는 교육 이론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왔으며(Cronbach, 1977), 창의성이 강조되는 현대 교육에서 교실 학습에서의 개인차 반영은 더욱 실천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교수-학습에서의 학생의 개인차 반영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개별화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초창기의 개별화교육은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업차를 수용하여 학교 수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근간의 개별화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경험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수월성'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황운한, 200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개별화의 방식 또한 개별처방수업법, 분반수업, 무학년제 1:1 수업과 같은 물리적 개별화의 방식에서 한 학급 안에 다양한 학생들을 함께 수용하면서 개인차에 따른 교육적 요구와 다양성을 긍정적 상호 작용으로 풀어 나가도록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차별화(DI: Differentiated Instruction)'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일반학급에서의 차별화 교육을 강조하는 탐린슨(Tomlinson, 2004)은 교사, 교수·학습 기제,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개별화 교육의 전제 조건으로 들고 있다. 특히 교사는 교실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실제 교수법적 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습자의 개인차는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이미 모든 수업에서 필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들을 취하기를 원하며 그에 따른 실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러한 교사의 교수·학습적 실천 의지가 제도, 시설 등, 교육 환경적 차원에서 어떻게 지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수업에서의 차별화 수준과 그에 따른 개별화 교육의 효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Tomlinson, 2004; 2005; Gregory & Champman, 2007).

음악학습에 있어서도 학생의 개인차는 학습의 효과와 경험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경험의 모든 과정에서 인지, 심동, 정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음악학습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음악 학습의 특성에 따른 학생의 개인차를 파악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교육적 의지는 학교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는 현재 학교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개별화 교육 관련 요인들을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음악 수업에서의 개별화 수업을 위한 실천적 방법의 모색에 앞선 기초 연구로서, 음악 수업 구성의 기준과 방법,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의 개인차와 그에 따른 개별화 수업의 필요성 및 현황 그리고 향후 교육을 위한 요구들을 전국 범위의 초등 교사와 중등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음악수업에서의 개인차 반영에 관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온라인 홍보 후,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최종 설문에는 216 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성별, 학교급, 학교형태, 교직경력에 관한 특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교사응답자 특성별 분포

연구대상별	구분	빈도(n)	백분율(%)
학교급	초등	119	55.1
	중등	97	44.9
성별	남자	41	19.0
	여자	175	81.0
소재지별	대도시	105	48.6
	중소도시	54	25.0
	읍면지역	57	26.4
학교형태	공립	203	94.0
	사립	12	5.6
	무응답	1	0.5
교직형태	전담	57	26.4
	일반	156	72.2
	무응답	3	1.4
교직경력	5년미만	50	23.1
	5-10년	54	25.0
	10-20년	73	33.8
	20년 이상	39	18.1

2.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음악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차 반영의 실태와 그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로 총 6개월 간 진행되었다.

최종 설문 문항은 개별화 교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근거로 기초문항을 개발한 후, 전문가의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대상의 표집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음악 지도경험이 있는 초등 교사와 중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 편집 과정을 거쳐 사회과학 통계분석 도구인 SPSS v.19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화 수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일반적 시각과 그에 따른 수업 실태를 탐색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결과에 대한 기술적 분석만을 포함하였으며 서로 다른 교과 편제와 교육 조건에 대한 분석을 전체로 이루어져야 하는 두 집단 간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 보고는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3. 조사 도구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과 개별화 수업에 관한 교사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의 내용 범주 및 문항은 개별화 수업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 및 문헌들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Gregory & Chapman, 2007; 한국교육개발원, 2005, 2006, 2008). 문항내용은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과 수업요인, 교사요인, 시설·환경요인, 학생요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요인, 정책요인의 내용범주에 의해 개발된 27개의 주 문항과 문항의 성격에 따라 세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하위 문항들(문항: 2-1, 3-1, 3-2, 12-1, 14-1)을 두었다(표 2).

<표 2> 교사 설문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번호
응답자요인	▪ 학교급, 성별, 지역(학교소재지)	(번호없음)
수업요인	▪ 수업의 우선순위	4
	▪ 수업형태	5
	▪ 교수방법	6
	▪ 교육과정상 활동영역의 균형	12, 13
	▪ 학생의 음악학습 수준차이를 고려한 평가기준	10
	▪ 평가의 우선순위	11
교사요인	▪ 개별화 교수법에 관한 이해	17
	▪ 개별화 교수법 연수 참여 의사	18
	▪ 음악 교사증원	24
	▪ 교사 전문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25
학생요인	▪ 음악 학습수준에 대한 학생 수준차이 인식	7
	▪ 수업 이해도	15
	▪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	16
	▪ 학생의 음악학습 수준차이를 고려한 수업준비	8
	▪ 학생의 음악학습 수준차이를 고려한 수업실시	14
	▪ 학생의 음악학습 수준차이를 고려한 교재 및 자료 활용	9
시설· 환경요인	▪ 음악실 등 시설 확충	22
	▪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6
	▪ 지역단위 예술 교수-학습 지원센터 구축	27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요인	▪ 예술교과시수 배당	1
	▪ 집중이수제 실시여부	2
	▪ (정규교과 이외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 시행 여부	3
	▪ 시수확대	23
정책요인	▪ 관리자의 관심과 후원도	19
	▪ 국가 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	20
	▪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21

* 응답자 요인 중 소재지는 설문 문항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분석단계에서 반영되었다.

‘수업요인’은 학생들의 개인차이가 수업 내용, 진행, 활동, 평가 등 수업 전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영역으로, 음악수업 활동 구성에서의 영역별 균형과 수업 방법 및 교재 활용 그리고 평가에서 개인차 반영 여부와 그에 따른 방식을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교사요인’은 학습자간 수준차이를 고려한 수업 진행에 대한 교사의 교수법적 준

비도와 관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영역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개별화 교수법의 적용 여부와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교사 수준의 요구사항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학생요인’은 음악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개인차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영역으로 음악 학습 능력과 일반적인 수업 이해도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수준 차에 대한 인식과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요인’으로는 각 학교의 제도적, 환경적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교과의 시수 배당, 집중이수제 실시여부와 음악관련 프로그램의 시행여부, 그리고 학교 및 지역과 관련된 시설 현황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 시켰다. 마지막으로 음악수업에서의 개인차 반영을 위해 향후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Ⅲ. 설문분석 결과

1. 수업요인

교사들은 음악수업의 우선순위를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적 체험에 두었다. 교육 과정에 제시된 활동들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의 음악수준 차이는 기악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형태는 ‘전체-개별-모둠’, ‘전체-모둠-개별’의 집단 수업의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수업 방식은 교사설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음악학습 평가 요소로는 개인의 향상도와 이해도가 중요시 되었고, 평가 시 학생의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는 상세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수업의 가치

음악수업에서 교사들의 우선수위는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적 체험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인적 성장 17.6%, 기초기능개발 15.7%, 잠재력 개발 13.0%,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음악수업의 가치

항목	빈도(n)	퍼센트(%)
다양한 예술적 체험	92	42.6
잠재력 개발	28	13.0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	22	10.2
기초기능 개발	34	15.7
전인적 성장	38	17.6
무응답	2	0.9
합계	216	100.0

2) 음악수업의 형태

음악수업에서 사용되는 수업형태에는 <전체-개별-모둠>의 응답이 43.1%였으며, <전체-모둠-개별>의 응답이 30.6%에 해당하였다(표 4).

<표 4> 음악수업의 형태

수업형태	빈도(n)	퍼센트(%)
개별-모둠-전체	13	6.0
개별-전체-모둠	15	6.9
모둠-개별-전체	13	6.0
모둠-전체-개별	12	5.6
전체-개별-모둠	93	43.1
전체-모둠-개별	66	30.6
무응답	4	1.9
합계	216	100.0

3) 교수방법

음악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 방법으로는 교사설명이 50.9%였으며, 토론과 협동학습, 학생주도의 방법이 각각 16.7%, 교사와 학생협의 방식이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음악수업에서의 주요 교수방법

항목	빈도(n)	퍼센트(%)
교사설명	110	50.9
교사와 학생협의	33	15.3
학생주도	36	16.7
토론과 협동학습	36	16.7
무응답	1	0.5
합계	216	100.0

4) 교육과정 활동 영역 간 균형

교육과정 활동 영역 간 균형에 대해서는 71.8%의 교사가 균형 있는 수업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교육과정 활동 영역 간 균형 인식

	빈도(n)	퍼센트(%)
그렇다	155	71.8
그렇지 못하다	61	28.2
합계	216	100.0

교육과정 활동 영역 간 수업 불균형의 이유에 대하여는 교재, 교구, 및 수업자료의 부족(37.93%), 교사의 전공 및 관심분야의 영향(29.31%), 학생 선호의 문제(24.14%), 교과교실의 부재(6.90%)의 순으로 답하였다. 개방형의 기타 응답으로는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교사의 영역별 이해도 및 수준차이, 시수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활동의 한계 등이 있었다(표 7).

<표 7> 교육과정 활동 영역 간 불균형의 이유

항목	빈도(n)	퍼센트(%)
교사전공 및 관심분야	17	29.31
교재, 교구, 수업자료 부족	22	37.93
교과교실 부재	4	6.90
학생선호	14	24.14
학교방침	1	1.72
합계	58	100

5) 교육과정 활동 영역 간 학생 수준 차이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육과정 활동 영역 간 학생 수준 차는 기악영역이 60.2%로 가장 높았고, 창작 23.1%, 가창 8.3%, 감상 0.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교육과정 활동 영역 간 학생 수준 차이

교육과정 영역	빈도(n)	퍼센트
가창	18	8.3
기악	130	60.2
감상	2	0.9
창작	50	23.1
기타	8	3.7
무응답	8	3.7
합계	216	100.0

6) 평가기준의 상세화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의 성취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상세화에 관하여 ‘그렇다’ 44.4%, ‘매우 그렇다’ 17.1%로 61.5%의 교사들이 상세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답하였다(표 9).

<표 9> 평가기준의 상세화

	빈도(n)	퍼센트(%)
매우 그렇다	37	17.1
그렇다	96	44.4
보통	71	32.9
조금 그렇다	6	2.8
전혀 그렇지 않다	5	2.3
무응답	1	0.5
합계	216	100.0

7) 평가의 우선순위

교사들은 평가의 요소 중 ‘결과물의 완성도’(16.2%), ‘태도’(6.9%), ‘독창성’(5.1%) 보다 ‘향상도’(38.0%)와 ‘이해도’(31.0%)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평가의 우선순위

항목	빈도	퍼센트(%)
결과물 완성도	35	16.2
향상도	82	38.0
독창성	11	5.1
이해도	67	31.0
태도	15	6.9
무응답	6	2.8
합계	216	100.0

2. 교사요인

교사들은 음악수업에서의 개별화 교수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개별화 교수법에 관한 교사 연수와 같은 교사전문성 지원 프로그램과 교사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 개별화 교수법(Differentiating Instruction)

과반수 이상(52.3%)의 교사들이 수준차를 고려한 개별화 교수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개별화 교수법 인지도

	빈도(n)	퍼센트(%)
알고 있다	113	52.3
모른다	103	47.7
합계	216	100.0

2) 개별화 교수법에 관한 교사연수 요구

개별화 교수법에 관한 교사 연수에 대하여 89.4%의 교사가 참여의향을 밝혀 개별화 교수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2).

<표 12> 개별화 교수법에 관한 교사연수 참여 의향

	빈도(n)	퍼센트(%)
있음	193	89.4
없음	22	10.2
무응답	1	0.5
합계	216	100.0

3) 교사증원 요구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한 교사 증원 필요성에 대하여,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필요하다’ 46.3%, ‘필요하다’ 32.4%로 78.7%의 응답자가 교사증원을 필요로 하였다.

<표 13> 교사증원 요구

	빈도(n)	퍼센트(%)
매우 필요	100	46.3
필요	70	32.4
보통	34	15.7
조금 필요	8	3.7
전혀 필요하지 않음	4	1.9
합계	216	100.0

4) 교사 전문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별화 수업을 통한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69.0%, ‘필요하다’ 27.3%로, 참여 교사의 96.3%가 교사 전문성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표 14).

<표 14> 교사 전문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빈도(n)	퍼센트(%)
매우 필요	149	69.0
필요	59	27.3
보통	5	2.3
조금 필요	2	0.9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0.5
합계	216	100.0

3. 학생요인

대부분의 교사들은 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업준비 단계부터 학생의 음악학습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음악수업 이해도 수준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1) 학생의 음악학습 수준차이 인식

학생들의 음악학습 수준에 대해서는 48.6%의 교사가 ‘매우 차이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43.5%가 ‘차이가 있다’라고 대답하여 92.1%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음악수준에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학생의 음악학습 수준차이 인식

	빈도(n)	퍼센트(%)
매우 그렇다	105	48.6
그렇다	94	43.5
보통	12	5.6
조금 그렇다	5	2.3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합계	216	100.0

2) 학생의 수업내용 이해도

학생의 음악수업 내용의 이해도 수준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53.2%)의 교사들은 학생의 70% 이상이 자신의 음악수업을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36.1%의 교사도 학생의 50-69%가 음악수업을 이해한다고 답하여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음악수업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6> 학생의 수업 이해도

학생의 수업 이해도	빈도(n)	퍼센트(%)
10-29%	6	2.8
30-49%	16	7.4
50-69%	78	36.1
70-89%	107	49.5
90-100%	8	3.7
무응답	1	0.5
합계	216	100.0

3) 학생의 다양성 고려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23.9%의 교사들이 '학급 내 능력별 집단구성'이라고 답했고, 20.8%의 교사들이 '1:1 개별 수업,' 16.6%는 '수준별 수업,' 14.7%는 '방과후지도,' 13.7%는 '개별과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17).

<표 17>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안(복수응답)

항목	빈도(n)	퍼센트(%)
1:1개별수업	79	20.8
수준별 수업	63	16.6
학급 내 능력별 집단구성	91	23.9
선택과목개설	36	9.5
개별과제	52	13.7
방과후지도	56	14.7
기타	1	0.3
무응답	2	0.5
합계	380	100.0

4) 수업계획 시 학생의 음악수준 차이 고려

수업계획 단계에서 학생의 개인차 고려 여부에 대하여 '그렇다' 54.6%, '매우 그렇다' 15.3%로 69.9%의 교사들이 수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개인차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학생의 음악수준 차이를 고려한 수업계획 여부

	빈도(n)	퍼센트(%)
매우 그렇다	33	15.3
그렇다	118	54.6
보통	51	23.6
조금 그렇다	10	4.6
전혀 그렇지 않다	4	1.9
합계	216	100.0

5)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수업 진행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수업에 대하여 64.35%의 교사들이 수업 진행 과정에서 개인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표 19>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수업 진행

	빈도(n)	퍼센트(%)
예	139	64.35
아니오	75	34.72
무응답	2	0.93
합계	216	100

‘아니오’라고 답한 75명 중 68명은 그 이유에 대해 ‘학생 수 과다’(39.71%), ‘학생 수준, 관심 분류의 어려움’(25.0%), ‘수업시수 부족’(13.24%), ‘교수학습의 지원 부족’(10.2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20).

<표 20>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수업 진행의 어려움

항목	빈도(n)	퍼센트(%)
강의 이외의 다른 교육방법 적용의 어려움	5	7.35
학생수준 관심 분류의 어려움	17	25.00
시설부족	2	2.94
교수학습 지원의 부족	7	10.29
학생 수 과다	27	39.71
수업시수 부족	9	13.24
시수 편성의 비효율성	1	1.47
합계	68	100.00

6)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한 교재 및 시청각 자료 활용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준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38.9%, ‘매우 그렇다’ 11.6%로 과반수에 달하는 교사들이 학생 수준차이를 고려한 교재 및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표 21>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한 교재 및 자료 활용 여부

	빈도(n)	퍼센트(%)
매우 그렇다	25	11.6
그렇다	84	38.9
보통	81	37.5
조금 그렇다	20	9.3
전혀 그렇지 않다	6	2.8
합계	216	100.0

4. 시설·환경요인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음악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의 확충,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단위 예술 교수-학습 지원센터 구축과 같은 시설 환경 요인의 확충과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강한 요구를 알 수 있었다.

1) 시설 확충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한 음악실 등의 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 74.5%, '필요하다' 22.2%로 교사들의 필요가 96.7%에 달하여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22).

<표 22> 시설 확충에 대한 교사 요구

	빈도(n)	퍼센트(%)
매우 필요	161	74.5
필요	48	22.2
보통	6	2.8
조금 필요	1	0.5
전혀 필요하지 않음	0	0
합계	216	100.0

2) 네트워크 구축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96.7%(‘매우 필요하다’ 56.9%, ‘필요하다’ 39.8%)로 높게 나타났다(표 23).

<표 23>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교사 요구

	빈도(n)	퍼센트(%)
매우 필요	123	56.9
필요	86	39.8
보통	4	1.9
조금 필요	2	.9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5
합계	216	100.0

3) 교수학습 지원센터 구축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센터 구축에 관하여 <표 2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필요하다’ 55.1%, ‘필요하다’ 35.6%로 90.7%의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4> 교수학습 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교사 요구

	빈도(n)	퍼센트(%)
매우 필요	119	55.1
필요	77	35.6
보통	15	6.9
조금 필요	3	1.4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0.9
합계	216	100.0

5.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요인

음악교과의 시수는 전체 응답자 중 초등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의 영향으

로 인해 2시간을 배당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시수 편성이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의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학교가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에 참여한 중학교 교사의 비율을 고려할 때 중등에서는 집중이수제의 실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음악 수업의 시수확대에 관한 높은 요구가 있었다. 정규교과 이외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 실행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내용으로는 방과 후 학교와 계발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1) 주당 교과교육 시수

주당 음악교과 시수는 2시간이 배정되었다는 응답(58.8%)이 가장 많았으며, 4시간(11.1%), 1시간(6.9%), 3시간(5.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

<표 25> 주당 음악교과 시수 배정

시수	빈도(n)	퍼센트(%)
1시간	15	6.9
2시간	127	58.8
3시간	11	5.1
4시간	24	11.1
기타	35	16.2
무응답	4	1.9
합계	219	100.0

2) 음악과 집중이수제 시행여부

조사 대상자의 43.5%가 음악교과의 집중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인 시수 배당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1학년은 4시간 그 외 학년은 1시간 배정, 1학년 2학기만 4시간, 2학년 1학기만 2시간, 3학년은 1시간을 배정하거나, 1, 2학기로 나누어 한 학기만 주 3시간 배정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표 26).

<표 26> 음악과 집중이수제 시행여부

	빈도(n)	퍼센트(%)
시행중	94	43.5
시행 안함	122	56.5
합계	216	100.0

3) 정규음악교과 이외의 프로그램 여부

교사용답자의 88.0%가 학교에서 정규음악교과 이외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7).

<표 27> 음악교과 관련 프로그램 유무

	빈도(n)	퍼센트(%)
프로그램 있음	190	88.0
프로그램 없음	25	11.6
무응답	1	0.5
합계	216	100.0

프로그램 시행형태는 방과후 학교가 48.0%, 계발활동이 35.0%였으며, 기타(8.8%) 응답으로는 국악예술강사 지원프로그램, 사교육 절감형 프로그램, 연주양상블 상설동아리, 특기적성교육 등이 있었다(표 28).

<표 28> 음악교과 관련 프로그램 시행형태(복수응답)

항목	빈도(n)	퍼센트(%)
방과후 학교	158	48.0
계발활동	115	35.0
기타	29	8.8
무응답	25	7.6
진로지도	1	0.3
적응활동	1	0.3
합계	329	100.0

교과관련 프로그램 담당으로는 예술전문 강사가 가르치는 경우(39.4%)가 가장 많았으며, 음악담당교사(22.5%), 일반교사(13.8%), 기타(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예술전문강사로 규정되지 않은 방과후 강사 또는 외부 강사로 명시되었다(표 29).

<표 29> 음악교과 관련 프로그램 담당자(복수응답)

항목	빈도(n)	퍼센트(%)
음악담당교사	65	22.5
일반교사	40	13.8
예술전문강사	114	39.4
기타	46	15.9
무응답	24	8.3
합계	289	100.0

4) 음악과 시수확대

개별화 수업을 통한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한 시수확대에 대하여는 ‘매우 필요하다’ 44.4%, ‘필요하다’ 28.2%로 음악교과의 시수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필요도는 72.6%로 나타났다(표 30).

<표 30> 음악과 시수확대

	빈도(n)	퍼센트(%)
매우 필요	96	44.4
필요	61	28.2
보통	50	23.1
조금 필요	5	2.3
전혀 필요하지 않음	4	1.9
합계	216	100.0

6. 정책요인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음악수업과 그에 따른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교사들의 높은 요구를 알 수 있었다.

1) 학교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 및 후원

학교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 및 후원에 대하여 40.3%의 교사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높은 편이다’(28.2%), ‘낮다’(20.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1).

<표 31> 관리자의 관심 및 후원

	빈도(n)	퍼센트(%)
매우 높다	11	5.1
높은 편이다	61	28.2
보통이다	87	40.3
낮다	44	20.4
매우 낮다	13	6.0
합계	216	100.0

2) 국가 차원의 행정지원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에 대하여 교사들은 ‘매우 필요하다’ 56.0%, ‘필요하다’ 38.0%로 응답하여 94.0%의 교사들이 국가차원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표 32> 국가 차원의 행정지원 요구

	빈도(n)	퍼센트(%)
매우 필요	121	56.0
필요	82	38.0
보통	13	6.0
조금 필요하다	0	0
전혀 필요하지 않음	0	0
합계	216	100.0

3)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62.0%)와 ‘필요하다’(32.9%)의 응답이 94.9%로 교사들의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에 대한 강한 필요를 알 수 있었다(표 33).

<표 33>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요구

	빈도(n)	퍼센트(%)
매우 필요	134	62.0
필요	71	32.9
보통	9	4.2
조금 필요하다	0	0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0.9
합계	216	100.0

IV. 논의 및 제언

1. 음악수업과 학생 개인차에 대한 인식

본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음악수업의 가치로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적 체험(42.6%)과 전인적 성장(17.6%)에 들고 있어 음악교육의 기능적인 측면 보다 경험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구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수의 교사가(71.8%) 교육과정 상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음악활동들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수업자료의 부족(37.93%)과 교사의 전공과 관심분야(29.31%) 그리고 학생의 활동 선호도(24.14%)를 원인으로 들었다.

대부분의 교사가 음악수업에서 학생의 수준차를 인지하고 있었으며(92.1%), 학생 간 수준 차의 정도는 기악(60.2%), 창작(23.1%), 가창(8.3%), 감상(0.2%)의 순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교들은 이러한 학생 간 수준 차이를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며(69.9%), 실제 음악수업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한다(64.4%)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개인차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교육적 처치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와 방법을 보자면, 수업형태에는 ‘전체-개별-모둠’이 43.1%, ‘전체-모둠-개별’의 유형이 응답의 30.6%를 차지하고 있어서, 학생의 개인차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학급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식 수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업 방식 역시 교사설명이 50.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교사중심의 일제 수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음악학습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교재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다고 (50.5%) 응답하여, 음악수업에서의 학생 수준 차 반영은 수업 교재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음악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수준 차에 대한 높은 교사인식(92.1%)에 비하여 실제 수업에서의 개인 차 적용은 학급구성이나

교수법을 통한 적극적 방식이 아닌 교재, 자료 등을 통한 소극적인 수준과 방법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 수업진행이 어려운 이유로 '학생 수 과다'(39.71%), '학생수준, 관심분류의 어려움'(25.0%), '수업시수 부족'(13.24%), '교수학습의 지원 부족'(10.29%)의 문제를 들고 있어 음악수업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한 수준별 수업의 소극적인 적용이 교사의 인식 부재 보다는 교육 조건과 교육 환경의 문제로 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개별화 교육에 대한 요구

설문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사들은 음악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 개인차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반수 이상(52.3%)의 교사가 학생의 개인차를 교수법적으로 적용하는 개별화 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을 다양성 고려의 방법으로는 '학급 내 능력별 집단 구성'에 대한 선호도(23.9%)가 선택과목, 방과후지도, 개별과제 등의 방법에 대한 선호도 보다 높아 현대적 의미의 수용적 개별화 교육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교사(89.4%)들이 기회가 제공될 경우 개별화 교수법에 대한 연수 참여 요구를 밝혀 개별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의 개인차를 반영하기 위한 개별화 음악 수업의 조건 중 시수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나타났다. 음악교과시수 배당은 2시간을 배당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나, 중학교의 경우 집중이수제의 실행에 의하여 다양한 시수편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편성의 다양성과는 무관하게 개인차 반영을 위한 음악 수업을 위해서는 현재 보다는 더 많은 음악 시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높게(72.6%) 나타났다. 기타 지원에 관한 요구 중 교사전문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교사증원에 관한 필요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차 적용을 위한 교수법적 차원의 지원이 우선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용답자의 88.0%가 학교에서 정규음악교과수업 이외의 음악관련 프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음악적성 또는 재능 개발을 위해 많은 학교에서 별도의 음악 프로그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사 또는 음악교사가 수업 외의 음악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경우는 25% 미만으로 나타나 일반 음악 수업과 연계되는 심화 또는 확장 수업을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그 밖에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교육의 수월성 확대를 위한 시설·환경적 요인의 행정-정책적 지원으로 교과교실 등의 시설 확충,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단위 예술 교수-학습 지원센터 구축의 세 항목에서는 모두 높은 비율로 강한 요구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현재 현장 음악교육의 수행 형태와 제도 및 환경에 따른 교육적 요구들은 기존의 교육상황에 비추어볼 때 예상되는 바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악 수업에서 영역별로 나타나는 개인차의 정도와 그에 따른 개별화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 차원의 인식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 수업에서의 개별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와 관심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 수업에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차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음악수업에서의 개인차 적용의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음악수업에서의 개인차 반영 및 이를 위한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소재 그리고 기법 등에 관한 교수법적 지원 뿐 아니라,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시수와 편성 그리고 시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개인차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음악수업에서의 개인차 적용의 문제를 교사 인식 차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 개인차에 대한 교사 인식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적 현황과 향후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요청되

는 교육적 요구들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별화 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동시에, 본 연구는 연구의 과정상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설문 대상의 포집에 있어서 전국 단위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그 숫자와 분포가 현재 우리나라 학교 음악 수업의 전체 상황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화 현황에 대한 분석이 교사설문 만을 근거로 이루어져 교육의 의도와 효과간의 관계성 이해 차원에서 해석의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음악수업에서의 개인차 반영은 학습자 중심 음악교육 실천의 측면에서 향후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논제를 제공한다.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개인차의 이해와 그에 따른 개별화 교육의 문제는 학교 급별, 영역 별, 그리고 교수법적 측면과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론과 수업을 연계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 된다.

참고문헌

- 전성연(1997). 교육에 있어서 개인차 반영과 수준별 교육과정. 교육문제연구, 9, 27-41.
- 한국교육개발원(2005).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초등학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6). 중학교 수월성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8). 수월성 제고를 위한 수준별 학습 확대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연

- 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예술교육에서의 수월성교육 확대 방안.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황윤한(2004). 개별화 수업의 본질에 관한 탐구. *초등교육연구*. 17(2), 269-300.
- Anderson, K. M., (2007). Differentiating instruction to include all students. *Preventing School Failure*, 51(3), 49 - 54.
- Bigio, K. (2010). Differentiation 3-7.
<http://osiriseducational.co.uk/outstandingteaching/>
- Ellis, E. S., & Worthington, L. A. (1994). *Research synthesis on effective teaching principles and the design of quality tools for educators (Technical Report No. 5)*. Eugene: University of Oregon, National Center to Improve the Tools of Educators.
-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regory, G. H., & Chapman, C. (2007). *Differentiated instructional strategies*. California: Corwin Press.
- Hall, T. (2002). *Differentiated instruction* [Online]. Wakefield, MA: CAST. www.cast.org/publications/ncac/ncac_diffinstruc.html
- Imbeau, M., & Tomlinson, C. (2011). *Managing a Differentiated Classroom: A Practical Guide*. NY: Scholastic.
- NCAC. (2002). *Exploring differentiation*. Unpublished material for NCAC annual seminar.
- Rock, M., Gregg, M., Ellis, E., & Gable, R. A. (2008). REACH: A framework for differentiating classroom instruction. *Preventing School Failure*, 52(2), 31 - 47.
- Tieso, C. (2005). The effects of grouping practices and curricular adjustments on achievement.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9(1), 60 - 89.

- Tomlinson, C. (2000). *Differentiation of instruction in the elementary grades*. ERIC Digest. Available:
www.ericdigests.org/2001-2/elementary.html
- Tomlinson, C. (2004). *How to differentiate instruction in mixed ability*.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Tomlinson, C. (2001). *How to differentiated classroom: Responding to the needs of all learner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Tomlinson, C., & Kalbfleisch, M. L. (1998). Teach me, teach my brain: A call for differentiated classrooms. *Educational Leadership*, 56(3), 52 - 55.
- Tomlinson, C. A., & Strickland, C. A. (2005). *Differentiation in practice: A resource guide for differentiating curriculum, grades 9 - 12*. Alexandria, VA: ASCD.

ABSTRACT

Investigation of Teachers' Perception about Differentiated Music Instruction

Chung, Jin Won · Shin, Hae-Kyung

This study investigated teachers' perception on the differentiated music instruction. The questionnaire was categorized with the factors of instruction, teacher, learner, policy, school curriculum, and learning environments. The survey participants consisted of a total of 216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on a national scale. The conclusions were revealed as follows: The teachers made students' various artistic experiences the first priority and put stress on the balance among activities in music curriculum. Based on teachers' explanations, they mostly used instructional methods of 'whole-individual-group' or 'whole-group-individual.' The teachers recognized differences in students' musical abilities. Moreover, they considered that they reflected these differences on preparing for the instruction, applying various materials, and creating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The teachers recognized music differentiated instruction, as well as they indicated their interests in the workshops about the differentiated instruction. For considering students' individual musical differences, they showed their strong needs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such as increasement the class hours for music subject,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in-service music teachers, increasement the number of music teachers, expansion of music-related facilities, and centers for music instruction.

key words: differentiated music instruction, music instruction, teachers' 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music education

투고일: 6월 30일, 심사(수정): 7월 12일(8월 6일), 게재확정일: 8월 14일